"교통안전 교육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6일 본보서 JDC청소년캠프 안전시설 실태 직접 살피기도

6일 한라일보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가 열렸다.

"'스쿨존'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이 중요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교육은 지금도 충분히 이뤄진다고 봐요.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고시연·태흥초 5)

6일 한라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2019 JDC와 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가 열렸다. 이날 '1일 한라일보 청소년기자'가 된 참가자들은 팀별로 구역을 나눠 제주중앙초등학교 인근을 둘러보며 교통안전시설 실태를 살펴봤다.

이날 참가자들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건너갈 때 힘들었다" "옐로우카펫 신호등 대기구역이 없어 필요해 보인다" "도로 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지워져 있어 빨리 보완돼야할 것 같다"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현장탐방 소감을 전했다.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물은 질문에 '과속 등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제주탐방 청소년캠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라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초(4~6)·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인 제4차 청소년캠프는 오는 13일 열리며, 8일까지 선착순(20명) 모집중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도의회 농수축위 태풍 피해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김희현 부의장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4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산분야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태석 의장은 "가뭄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상실감이 배가 되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복구 및 예비비 조기 투입 등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올 여름 가뭄에 이어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우박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당장에 복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년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는 농심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는 상황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 림

출산장려 캠페인

아기의 탄생, 세상의 행복

한라일보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출산축하 코너**'를 선보입니다.

제주에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나 조부모는 아기(가족)사진과 소정 양식에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시면 누구든 게재 가능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출산가정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 출산캠페인 배너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baby@ihalla.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편집부 ☎750-2251)

이메일 접수가 힘드신 분을 위해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지선 독창회 '낙원의 꽃'

제주 메조 소프라노 김지선(사진)씨가 '낙원의 꽃(Fior del paradiso)'이란 이름 아래 평화와 안식의 노래들로 독창회를 연다.

이달 8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김씨는 윤이상·김동진·허방자·이건용·김광자·김진수 등 한국 근현대 예술가곡을 비롯 토스티와 마스카니의 낭만적인 이탈리아 예술가곡,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어머니의 비극적인 종말을 떠올리는 집시 여인 아주체나의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이상의 세계를 갈망하는 인간의 염원이 담긴 작품을 선곡했다. 피아노는 정영하씨.

앞서 김씨는 2017년 독창회 '이어도사나'에서 제주 민요와 창작곡들로 제주인과 바다에 얽힌 삶의 질곡과 희노애락을 담아냈다. 지난해 '웡이자랑 자랑 자랑'에서는 화산섬 제주와 한라산의 유구한 이야기를 무대에 실었다. 가천대학교와 독일 라이프찌히 음악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사)한국페스티발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제주도민협회 오찬익 고문 별세

재일동포 사업가이자 제주도민협회 오찬익(73세·사진) 고문이 지난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의 부모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출신이며 고인은 토쿄 아타치구에서 태어나 일찍이 (주)미하마를 설립한 뒤 동경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주재외도민총연합회 회장,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일본 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3대 제주도민협회장 재임 시 협회의 오랜 숙원인 회관을 마련했고, 도민주로 (주)사이교를 세우고 K.S.K빌딩 구입, 임대사업 등을 통한 수익으로 재정 자립에 앞장섰다.

또한 고인은 2018년도에 일왕으로부터 감수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영주고 학생들 제주도의회서 의정체험

영주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및 스피치와 토론반 동아리 학생 22명은 지난 4일 제주도의회를 찾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참여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 견학, 도의원과의 만남 이후 직접 의장 및 의원, 도지사, 교육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같이 '모의 의회'를 운영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처리, 5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했다.

동정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8일 제주칼호텔 2층연회장에서 열리는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할 예정.

용담1동 10월 정례회의 참석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8일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용담1동 마을발전협의회 10월 정례회의'에 참석할 예정.

필리핀 앙헬레스 시장과 간담회

◇고희범 제주시장 지난 4일 집무실에서 제주음식박람회에 참석한 필리핀 앙헬레스시의 라자틴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돼지고기 수출 등의 교류 방안등에 대해 논의.

신풍리 태풍 피해 지역 등 현장점검

◇정병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지난 4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성산읍 신풍리 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실시.

함덕고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함덕고등학교총동문회는 최근 모교 체육관에서 오영훈 국회의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25의무경찰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제주해안경비단 제125의무경찰대(대장 경감 이한우)는 지난 4일 태풍 피해를 입은 제주시 구좌읍 소재 구좌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